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TEXTILE 3일간의 세미나, 6개 주제 포럼 진행

인터텍스타일, 국제 섬유 비즈니스 강화로 참가국 확대⁽¹⁾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어패럴 패브릭(Intertextile Shanghai Apparel Fabric)이 3월 6-8일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중국 최대 소재 전시회인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어패럴은 올해 2,600개 이상의 중국 기업과 23개 국가 및 지역의 450개 이상의 전시업체가 참가해 글로벌 트렌드 변화를 제안했다. 또 35개의 세미나, 포럼 및 패널 토론이 개최되어 트렌드, 비즈니스 전략, 지속가능성 문제,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주제를 토론했다. 특히 올해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페루, 싱가포르, 스페인 등이 전시회에 새로이 합류함으로써 넓은 폭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2025 S/S 트렌드를 제안하는 프린지 프로그램에서는 Turbulence(격변)을 주제로 네가지 트렌드(Grace, Immersive, Switch, Voice)를 집중 조망했다.

더불어 유럽 공장의 남성복 및 여성복 원단을 선보이는 프리미엄 울 존, 10명의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구성된 Verve for Design 등이 프리미엄 소재로 차별화를 꾀했다. 한국에서는 기능성, 친환경, 폴리에스터, 리넨, 실크, 레이온 등 다양한 종류의 소재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어패럴 가을 전시회는 오는 8월 27-29일 상하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TEXTILE

섬유기업, 한·미 FTA ‘협력생산자통보’ 등록⁽²⁾

섬산련 섬유수출 안정성 확보 강화 위해 서비스 지원

전세계 공급망 전 단계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수출 품목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졌다. 한·미 FTA 수출 관련 수출자와 생산자는 섬유수출 안정성 확보 강화를 위해 ‘협력생산자통보’ 등록을 해야 한다. 협력생산자통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공정별 생산기업을 섬유생산정보관리시스템(www.ftatex.or.kr)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미국 수출 제품의 공

정별 실제 생산자가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 정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국 세관이 입증 서류를 추가 요청하거나,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원산지 신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생산자통보 기한은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며 2차로 5월에 진행된다.

섬산련은 3월 13~15일 ‘2024 프리뷰 인 대구’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국내 섬유패션

FTA 활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보 부스에서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 협력생산자통보 이외에 업계 지원사업 안내, FTA 활용 매뉴얼 배포 등과 FTA 관련 현장상담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또 FTA 원산지 및 공급망 관리에 관해 설명하고 관련 플랫폼 시연을 통해 원산지 관리 및 인권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FASHION

밀라노패션위크, KEY는 애니멀 프린트, 실크로드, 캐시미어⁽³⁾

뉴에이지 스타일의 랩이 어색한 아이템으로 등장

패션 미디어 패션유나이티드(FASHIONUNITED)는 이번 2024 FW 밀라노패션위크의 키워드로 애니멀 프린트, 실크로드, 캐시미어 등을 꼽았다.

밀라노패션위크의 단골 메뉴인 애니멀 프린트는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여러 무대를 장악했는데 특히 ‘표범 무늬’가 눈에 띄었다. ‘블루마린’에서는 대형 레오파드 프린트 코트가 등장했고, ‘디젤’은 동물 프린트 위에 장미 프린트가 더

해진 레오파드 프린트 모피 재킷을 선보였다. ‘돌체&가바나(사진)’ 역시 표범 무늬의 맥시 코트, 이와 어울리는 표범 무늬 모자와 가방을 매치시켰다.

추동 시즌 컬렉션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원단, 세미 누드의 이너웨어가 트렌드를 주도했다. ‘다니엘 헬 코어’의 누드 시어 슬립, ‘사바토 데 사르노(사진)’의 시어 네이비 슬립과 브라렛의 조화, ‘로베르토 카발리’의 레이스 장식이 더해

진 블랙 드보레 슬립 등이 시선을 끌었다. 또 캐시미어 울 소재가 아우터웨어부터 스카프, 전신을 감싸는 랩으로 활용됐다.

‘로라 비아지오리’는 후드가 달린 양면 울 슬슬, ‘보테가 벤테라(사진)’는 블루 컬러의 비대칭 터틀넥 슬슬을 무대에 올렸다. ‘페라가모’는 넓은 벨트 넥이 달린 브라운 울 케이프를, ‘다니엘레 칼카테라’는 슬 랩을 부착한 브라운 트위드 코트를 선보였다.



FASHION

H&M, 8,000억원 투자해 섬유 재활용 벤처기업 설립⁽⁴⁾

사이레(Syre) 섬유 재활용 폴리에스터 시장 도전

글로벌 패션 기업 H&M그룹이 글로벌 투자자 바르가스홀딩스(Vargas Holdings)와 협력해 리사이클 소재 벤처 기업 사이레(Syre)를 설립했다. 사이레는 순수 폴리에스터와 동일한 품질의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섬유 기업이다. 화학물질인 글리콜을 사용해 섬유 폐기물을 단량체(모노어)로 분해 후 다시 중합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사용한다.

전세계적으로 섬유 간 원형 폴리에스터를 생

산하는 여러 생산 공장을 설립해, 석유 기반의 버진 폴리에스터와 동등한 품질과 우수한 지속가능성 성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5%까지 축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M그룹은 사이레와 7년에 걸쳐 6억 달러 상당의 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했다. 사이레의 첫번째 생산 공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10년 내에 아시아, 유럽으로 글로벌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2개 기가 규모 공장을 가동해 3백만 미터톤(MT) 이상의 원형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M그룹의 다니엘 CEO는 “섬유간 재활용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사이레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업계 관계자가 루프를 닫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영감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3D DIGITAL

‘메종 마르지엘라’가 메타버스에 빠진 이유는?⁽⁵⁾

시그니처 슈즈 ‘타비(Tabi)’의 NFT ‘메타 타비’ 출시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가 아이코닉 슈즈 스플릿 토 ‘타비(Tabi)’ 슈즈를 메타버스에 데뷔시켰다.

‘메종 마르지엘라’ 파리 오프 푸피크 하우스는 3월 말 실제 제품과 NFT로 판매되는 타비 부츠 버전 ‘메타 타비(Meta TABI)’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타 타비는 화이트 컬러 하나로 전체계에 15개만 판매할 계획이어서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디지털 부츠인 블랙 부츠는 1,500개로 출시를 좀 더 대중적으로 풀어낸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메타 타비 수집가에게 신규 게임 및 메타버스 토론 게이트 액세스, 메타타비의 증강현실 웨어러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향후 ‘마르지엘라’ Web3 컬렉션에 대한 우선 액세스 권한도 줄 예정이다.

스테파노 로소(Stefano Rosso)는 ‘메종 마르지엘라’ 회장이자 모그룹인 OTB 그룹의 Web3 부문 브라이언 버추얼 엑스페리언스의 CEO로 패션과 메타버스의 연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존 갈리아노의 창작성이 더해져 ‘메종 마르지엘라’를 디지털 세상과 연결했다.



DYETEC NEWS

다이텍연구원, 60년 수교국 엘살바도르와 섬유산업 협력⁽⁶⁾

양국 기업 간 B2B 연계 활성화

다이텍연구원이 지난 3월 6일 하이에 호세 로페스 바디아(Jaime Jose Ropez Badia)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를 초청해 양국 섬유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다이텍연구원과 엘살바도르 협력 강화의 첫 걸음으로 성사됐으며,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관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엘살바도르를 대상으로 글로벌 연수

(KOICA CIAT)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홍성주 다이텍연구원 원장은 “양국 수교가 시작된 지 60년이 넘는 만큼 양국 협력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알고 있다. 그 중심에 섬유 산업이 있기를 바란다. 엘살바도르 섬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이텍연구원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에 호세 대사는 “엘살바도르 섬유산업은 수출 주도형 주요 산업분야이며 한국

은 엘살바도르의 협력 파트너로 기대가 크다. 양국 기업간 B2B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다이텍연구원은 2019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인 TASK 사업을 통해 6개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현장 애로기술 개선 및 B2B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메세 프랑크푸르트 제국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국
3. FASHIONUNITED, Key Trends: Animal prints, cocooning and more at Milan Fashion Week FW24, 24년 3월 8일
4. H&M Group unveils Syre to scale textile-to-textile rPET production, 24년 3월 6일
5. 보그비즈니스, The Margiela Tabi is now available in the metaverse, 24년 3월 6일
6. 경복신문, 다이텍, 엘살바도르 대사 초청해 양국 섬유산업 협력, 24년 3월 10일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센터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